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목표	독수정원림을 탐방하며 자연과 더불어 함께한 선조들의 지혜를 느껴보자.		
해설주제	독수정원림과 무등산권의 정자		
해설재료	독수정원림, 전신민장군, 식영정	소요시간	60분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분)
만남	인사나누기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소개	무선 마이크 구급함	5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무등산국립공원 복산 소개 - 일정 및 주의사항 전달		5
주제 해설	독수정원림	- 독수정과 전신민 장군 - 독수정원림 - 차경의 의미 - 무등산 주변의 정자 -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 - 사라진 자미탄	사진 자료	40
마무리	느낌나누기	- 느낌나누기 - 인사하기		10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나누기 및 프로그램 소개	<p>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p> <p>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산수로 가사문학의 꽃을 피운 담양 정자문화권의 시초이자 무등산 북쪽에 자리한 무등산권 원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독수정원림을 탐방하겠습니다.</p> <p>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탐방을 하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간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을 할 것입니다. 모두 몸 상태는 어떠세요? 네, 모두 좋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p> <p>안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p> <p>그럼, 출발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p>
무등산 국립공원 소개	<p>여러분, 혹시 무등산국립공원 방문은 처음이신가요?</p> <p>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p> <p>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막내인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3월 4일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호남의 진산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명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호남정맥에 속한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있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등급이 없는 온전한 평등이란 의미입니다.</p> <p>무등산과 함께 호남정맥에서 뻗어 나와 담양에 위치한 북산은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많은 산악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북산’이라는 이름은 무등산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독수정원림은 북산 자락 산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독수정과 전신민 장군	<p>준비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풀었으니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곳은 독수정으로 고려시대 전신민 장군이 은거하던 정자입니다. 여러분, 전신민 장군 처음 들어보셨지요? 전신민 장군은 고려 말 공민왕 때 병부상서를 지낸 무인으로 병부상서는 지금의 국방부장관쯤 되는 직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영, 이성계와 더불어 고려 말 최고의 장군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절친한 사이였던 정몽주 선생이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하자, 두 나라는 모실 수 없다며 아들과 함께 이곳 무등산 산음동으로 들어와 독수정을 짓고 숨어 사셨다고 합니다.</p> <p>독수정의 독수는 ‘홀로 지키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독수정의 방향이 동서남북 중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북쪽을 향하고 있지요. 보통 집이나 정자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해를 많이 받기 위해 남쪽을 향해 짓거나 창을 내는데, 전신민 장군은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독수정을 고려의 수도 개경이 있는 북쪽방향으로 짓고, 아침마다 절을 하며 나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셨습니다.</p> <p>먼 길 오신 여러분께 제가 선물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p> <p>風塵漠漠我思長    자욱이 이는 티끌 시름도 깊어라                      何處雲林寄老蒼    어느 구름 숲에 늙은 몸을 숨길고                      千里江湖雙雪    머나먼 천 리 길에 흰 귀밑머리 나부끼고                      百年天地一悲涼    한평생 천지간에 슬픔 가득 서늘해라                      王孫芳草傷春恨    임은 이미 가셨어도 한 많은 봄풀 돋고                      帝子花枝月光    꽃가지 두견새는 달빛에 울음 우네                      卽此青山可埋骨    이 산골 푸름 두르고 백골로 묻힐지라도                      誓將獨守結爲堂    두 나라 아니 섬기리 홀로 지킬 집을 짓네</p> <p>어떠세요? 들어보니 마음이 애잔하지요? 이 시는 바로 전신민 장군이 독수정에 은거하며 나라 잃은 슬픔을 읊은 시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독수정원림	<p>여러분, 독수정 주위를 둘러보세요. 독수정 둘레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전신민 장군과 후손들이 원래의 숲에 어떤 나무들을 심어 자연과 어울리게 가꾼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퀴즈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p> <p>먼저, 사계절 푸름으로 변치 않는 지조를 나타내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소나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러지지 않는 곧음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대나무요~) 네, 또 맞히셨어요. 마지막으로 나무껍질이 벗겨져서 줄기가 맨들맨들하여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렵지요? 바로 배롱나무입니다.</p> <p>전신민 장군과 후손들이 굳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대나무를 심어 그 뜻을 후대에 전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숲, 계곡, 바위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정자를 짓거나 의미있는 나무들을 심어 자연과 조화롭게 가꾸었는데, 이것을 원림이라고 합니다.</p> <p>원림은 자연 안의 정원, 담장 없는 정원인데, 저는 원림에 있으면 우리 선조들의 자연을 대하는 겸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도 느껴지세요? 이런 고운 마음으로 함께 살아온 무등산인데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차경의 의미	<p>우리 전통 건축양식에서 ‘창’은 건물의 안과 밖을 이어주고 소통케 하는 통로로 바깥의 풍경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차경’이라 했습니다. ‘차경’은 바깥의 풍경을 건물 안으로 빌려온다는 의미로 이 단어 한마디에서 우리는 동양만의 독특한 자연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조작하고 다스리는 군림의 의미가 아닌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각과 자연을 잠시 빌려 쓴다는 고품격의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써 차경은 풍경을 보는 사람의 겸허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비추기도 합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차경의 의미	<p>마당이나 정원에 작은 자연을 조성하는 조경과 달리 우리 선조들은 ‘차경’을 보다 잘 하기 위해 담을 낮게 만들고 마당을 비워 놓았습니다. 나무도 심지 않고 잔디도 깔지 않았으며 되도록 물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급적 비워서 차경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투명한 도화지처럼 비워 놓은 마당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하늘, 산, 들, 나무를 깃들게 해 사시사철 자연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크게 보면 ‘비움의 미학’이란 것인데, 비움으로써 다른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지혜인 것입니다.</p> <p>그러면 독수정 너른 마당에는 어떤 풍경이 깃들어 있을까요? 모두 마루에 앉아 독수정원림의 풍경을 잠시 감상해볼까요?</p>
무등산 주변의 정자	<p>독수정원림이 처음 생겨난 후, 사람들은 무등산의 빼어난 경치에 반해 이 주변에 많은 정자와 원림을 만들었습니다.</p> <p>조선시대 민간정원의 모습을 간직한 소쇄원, 억울하게 죽은 의병장 김덕령장군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취가정. 특히 송강 정철선생과 관련된 정자가 많은데, 송강 정철선생이 어릴 적 학문을 공부한 환벽당,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lt;사미인곡&gt;을 지은 송강정, 그림자도 쉬어갈 만큼 빼어난 경치를 &lt;성산별곡&gt;에 담은 식영정.</p> <p>이곳의 여러 정자에서 학자들과 선비들은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고 수많은 노래로 남겼는데,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국어책에서 배운 가사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조선 중기에 가사문학을 꽃피운 산실인 것이지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의 독수정원림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	<p>40년 전만 하더라도 무등산 서쪽 봉우리에서 발원해 독수정 건너편 식영정 앞을 지나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증암천(창계천)을 자미탄이라 불렀습니다. 냇가에 서있는 붉은 배롱나무 꽃(백일홍, 자미)이 물결에 일렁이는 이 아름다운 자미탄 주변에는 굴곡 많은 시대를 살다간 옛사람들의 고뇌와 서정이 깃든 정자들이 자리합니다. 자미탄의 정자와 원림에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로 읊고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우리 문학사에 주옥과도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p> <p>이렇게 자연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다양한 창작활동에 영감을 주고, 자연 그자체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p>
사라진 자미탄	<p>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만큼 우리는 자연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붉은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자미탄은 1970년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증암천을 막고 광주댐을 만들면서 사라졌습니다. 자미탄이 있던 자리는 광주호와 주변도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미탄은 옛사람들의 추억과 예술작품으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p> <p>농사에 필요한 광주호도, 우리의 정서를 평온하게 하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자미탄도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미탄과 광주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마음인 ‘원림’ 과 ‘차경’ 을 떠올리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p>
마무리	<p>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독수정원림 탐방 어떠셨나요? 독수정원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독수정에 얽힌 전신민장군의 슬픈 이야기, 원림과 차경으로 대표되는 선조들의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 우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자연의 소중함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즐거워하시니 저도 정말 보람됩니다.</p> <p>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숲과 자연의 고마움을 기억해주시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국립공원의 노력과 활동에 함께해주세요.</p> <p>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p>